

# 고양, 경기 북부권 벤처육성 촉진지구 지정

### 대화·백석·원흥동 등 125만㎡ 벤처기업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경영·기술 지원 등 시장 안착 도와 市도 벤처·창업펀드로 경쟁력 강화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곡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로 총 면적 125만㎡(약 37만 8000평) 규모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특례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역동적 투자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양벤처펀드,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정부·민간 재원을 결합한 고양벤처펀드는 모태펀드 420억원, 민간자본 380

억원 출자 등 약 800억원을 조성했다. 투자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4차 산업으로 관내 및 이전기업에 시 출자액의 2배수인 40억원 이상을 해당 산업 분야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8정촌사업소,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 IR데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과밀억제권역 등을 포함한 이종·삼중 규제가 있지만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과 첨단 업종을 포함한 210여 개의 업종은 개별 입지에서 공장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기업들이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 지역 패스트

### 의왕, 17일 잡페스티벌 개최

경기 의왕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슬기로운 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건설, ㈜한진화학, ㈜에버그린 등 관내·외 30여개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 면접채용 및 이력서 연계 간접채용 등으로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면접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하거나 의왕일자리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행사장으로 면접에 필요한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를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청년층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명 기업의 전·현직자로부터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해 눈길을 끈다. 경영관리·인사(LG), 마케팅·홍보(CJ), 반도체·전자(삼성전자), 방송·미디어(KBS) 직무 멘토들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창업지원, 노무 상담 및 여성·장애인·어르신 등 대상별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고 퍼스널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킹, 면접메이크업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의왕=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 영주, 풍기인삼 홍보·관촉 협약

경북 영주시는 지난 11일 풍기인삼축제장에서 NOHJPRO 및 풍기인삼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건강 기능성 식품 다양화로 인한 인삼 소비 감소와 산지 인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인삼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풍기인삼농협은 NOHJPRO에 인삼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제품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NOHJPRO는 풍기인삼을 활용한 제품의 홍보와 관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삼 관련 제품의 판매 실적 및 소비자 반응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OHJPRO는 올해 풍기인삼연구소의 연구지원으로 풍기인삼을 활용한 삼푸, 바다위시, 미스트 등의 시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날에는 경북농업기술원 및 풍기인삼농협과 '인삼미용제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 부산 남구, 26일 오륙도걷기대회

부산 남구가 오는 26일 제42회 유엔남구 오륙도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광장에서 이대해안산책로를 거쳐 백운포 체육공원 그라운드로 출발하는 약 5.5km(약 1시간 30분 소요) 코스를 걷는 것으로 진행된다.

출발 직결지인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광장에서 걷기대회 식전 낮 12시부터 인기캐릭터 플라투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오후 2시 개최식에는 구민의 염원을 담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남구는 준비완료'를 외치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착 직결지인 백운포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댄스팀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펼쳐진다.

부산=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

### 대전현대아울렛 '청양로컬마켓'

충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이달 말까지 대전현대아울렛에서 지역 우수 먹거리 등 '청양 로컬마켓'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로컬마켓은 청양군의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통 집 공예품으로 마켓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대전현대아울렛에서 관촉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을 선보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번 행사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상품들로 준비했다.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 고추, 표고버섯 등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 그리고 태안군의 싱싱한 제철 수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청양의 전통 집 공예품들로 가득 채워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양=김정영 기자 cy12200@viva100.com



16일은 서울교육감 투표하는 날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에 부자가 참여하고 있다.

## 인천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 쟁점음

### 개항장 일원 근대화·다국적 문화 중심지 정주여건 개선·관광상품 개발 전략 수립

섬, 바다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141년 전인 1883년 전 근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원도심인 '개항장'이 글로벌 명소로 거듭난다.

인천 개항장은 여러 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로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제품포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구축해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개항장 지역은 근대화와 다국적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시는 이러한 공간들을 스토리텔링과 체험 요소를 결합한 명소화 전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철도, 대로 등으로 단절

된 관광 루트와 보행환경을 정비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제품포 브랜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날부터 개항장 명소화 사업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인천역에서 개항 광장에 이르는 주요 거점의 보행환경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적 자원의 발굴, 물리적 환경 개선, 관광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강화해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해 지역 로컬 브랜드 홍보를 활성화하고, 제품포 웨이브 마켓과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이훈만 기자 lcn9504@viva100.com

## 신안, 축구장 600개 면적 김 양식장 확보

### 380ha 추가... 김 수급 안정화 기대

전남 신안군은 선제적으로 신규양식장 확보계획을 수립해 전남 1655ha 중 축구장 600개 면적의 380ha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규 개발된 김양식 면하는 11월 중 면허 예정으로 올해 10월~11월에 생산되는 잇바디돌김의 생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식무늬김을 12월부터 이듬해 5월 까지 생산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양식업권의 대부분은 어촌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신규 어업자(귀어·청년 등)에 대해 양식업 참여 기회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별수협(신안군수협)과 협의해 지역별로 새로 유입된 어업인 중 조합원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기존 어업인 중심으로 양식기반을 활용하고 있는 어촌사회

의 폐쇄적인 진입장벽 등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신규 어업자의 양식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돼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군수는 "기존 어업인 중심의 폐쇄적인 면허제도를 지속적으로 변화해 김 양식 경영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모든 어가에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양식면허 또한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역금 신규 양식장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준명 기자 namdo6340@viva100.com

## 전남,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

### 체육시설 등 주민 힐링공간 조성

전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

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준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말 현재 전국 151만2000ha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ha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7000ha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ha의 21.7%인 4500여 ha로 추정된다.

전남=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 조선 문장가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친필 초고본 공개

조선 최고의 문장가이자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친필 초고본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연암 박지원이 붓으로 쓴 여정, 열하일기 친필초고본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쓴 열하일기 친필초고본을 비롯해 연암이 전 생애에 걸쳐 쓴 저작류 32종 83책을 전시한다. 특별전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열하일기의 뼈대가 된 초고본 '연행음정(艸) (燕行陰晴)'이 공개된다.

연행음정(艸)은 열하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43일간의 정나라 연행 일정이 기록돼 있다. 열하일기에 대한 다양한 이본(異本) 연구가 있었지만, 연행음정(艸)은 열하일기 최초의 모습이자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1780년 조선 정조 때 청나라 건릉제의 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청나라에 가서 겪은 기행을 기록한 여행기다.

용인=김아라 기자 smileara@viva100.com